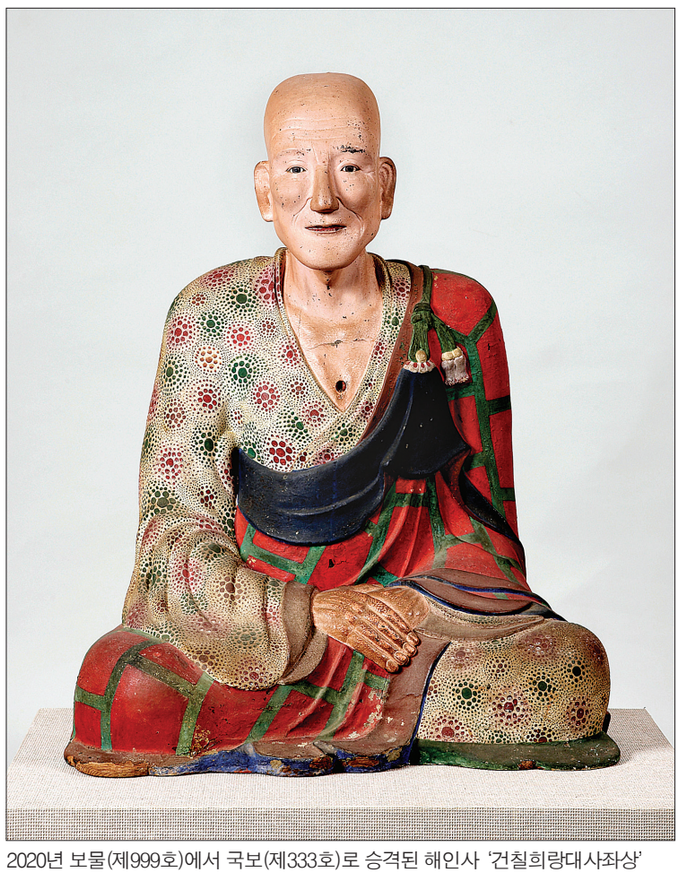
마주한 부처님 미소로 치유의 시간을…

부산박물관 '치유의 시간, 부처를 만나다' 展
5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기획전시실

국보 3점, 보물 12점 등 불교 미술 110여 점
건칠희랑대사좌상 국보지정 후 첫 외부공개
불복장작법 영산재시연 등 부대행사도 진행


2020년 보물(제999호)에서 국보(제333호)로 승격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국보 제200호 금동보살입상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미술의 걸작들을 한자리에서 만난다. 부산시립박물관(관장 정은우)은 2022년 첫 번째 특별기획전으로 '치유의 시간, 부처를 만나다' 를 5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코로나19' 라는 초유의 사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중을 불교의 세계관을 통해 치유하고 희망과 도약을 기원하는 이번 전시는 합천 해인사, 남해 용문사, 창원 성주사, 양산 통도사, 예천 용문사, 부여 무량사, 서울 경국사,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부산대학교박물관 등 전국 16개 주요 사찰과 박물관 · 미술관이 소장해 온 불교미술의 정수(精髓) 11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2020년 보물(제999호)에서 국보(제333호)로 승격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이 국보 지정 후 처음으로 해인사 밖에서 대중에게 소개된다. 건칠희랑대사좌상은 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 활동한 고승 희랑대사(생몰연대 미상)의 모습을 조각한 유일한 조사상이다. 희랑대사는 화엄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해인사 희랑대에 머물며 정진했다고 전해진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크게 공헌했으며, 왕건은 그 보답으로 토지를 하사해 해인사 중창을 도왔다고 한다. 건칠희랑대사좌상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조각(祖師像 · 僧像)' 으로, 고려 10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유사한 시기에 중국과 일본에서는 고승의 모습을 조각한 조사상이 많이 조성됐지만, 한국에서는 유례가 거의 없었다.

전시는 총 4부로 나뉜다. △1부, 〈佛像, 부처님의 참모습〉에서는 통일신라 불교미술의 수작으로 손꼽히는 국보 '금동보살입상' 과 '건칠희랑대사좌상' 을 비롯해 이색적인 형태의 고려시대 불교 조각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조선 후기 조각승의 계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조선 시대 불상도 소개된다.

△2부 '佛腹藏, 염원의 시간' 에서는 불상과 불화에 생명력과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해 시작된 '복장물' 을 소개한다. 우리나라 현존 복장물 중 가장 오래된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 납석제사리호(이하 납석제사리호)' 를 비롯하여 고려, 조선 시대 불복장의 유형과 안립의식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납석제사리호는 경상남도 산청군 석남암 터의 석불대좌 중대석에서 발견된 것으로 조성 시기는 통일신라시대인 766년이다. 사리함 표면의 명문에는 당시 신라의 승려 법승과 법연이 죽은 두온애랑을 위해 비로자나불을 조성했고,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함께 봉안했다고 적혀있다. 발굴 과정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는 훼손되어 보존되지 못했다. 불상대좌중대석에 법사리를 봉안한 것은 한반도에서 처음 발견된 사례다.

복장물은 〈조상경〉에 근거하여 형식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지만 복장물마다의 발원 이유와 염원의 내용은 다양하다. 그 시절의 간절했던 불심을 공감해 보는 자리다.

△3부 '佛畫와 寫經, 진리의 세계' 는 불심의 절정이 담긴 불화와 사경을 선보인다. 50여 점밖에 전하지 않는 고려불화 중 명작으로 꼽히는 '수월관음도' 와 '나한도' 등 고려불화와 합천 해인사와 창원 성주사의 '감로왕도' . 예천 용문사의 '화장찰해도' 등의 조선불화를 선보인다. 길이 9.5m, 너비 6.3m에 이르는 대형 불화인 '남해 용문사 괘불탱' 도 선보인다.

수월관음도는 33관음 중 하나인 수월관음의 모습을 도상화한 불화로, 일반적으로 관세음보살이 보타낙가산의 연못가 바위에 앉아 선재동자를 맞는 모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중국 당말 오대 돈황에서 제작된 수월관음도 군이 현존하는 수월관음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조성된 관세음보살도 대부분이 수월관음도에 속한다.

△4부 '부산 불교미술의 거두, 玩虎 스님' 에서는 부산의 영도 복천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전통문화의 명맥을 이어 현대 영남지방 불교미술에 큰 영향을 끼친 완호 스님의 작품을 소개한다. 완호 스님은 불교미술의 전통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여 불교미술의 맥이 오늘날의 영남 지방까지 이어질 수 있게 했다. 또한 규제와 감시가 극심했던 일제강점기에도 완호 스님은 서명에 일본 연호를 사용하지 않는 등 굳은 항일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14점의 시 · 도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국보 3점, 보물 12점 등 다수의 국가지정문화재까지 유례없이 많은 지정문화재를 선보임으로써 그동안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립박물관은 부대행사로 6월 4일에 불교 전통문화 관련 국가무형문화재인 '불복장작법' 과 '영산재' 의 시연행사를 진행한다. 5월 26일과 6월 24일에는 오후 4시부터 약 40분간 전시 기획 학예연구사가 관람자를 대상으로 직접 전시해설을 하는 '큐레이터와의 역사나들이' 를 진행한다. 행사 관련 세부사항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공지한다.

정은우 부산시립박물관장은 "이번 전시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미소를 마주하신 모든 분이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마음을 위로받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얻어 가시길 바란다" 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보성 대원사 개산 1520주년 기념 특별전


순천 선암사 동종(보물 제1561호)


대원사 사자 탱화(보물1800호) 직부사자

'대원사 성보 문화재 특별전시회'
대원사 티벳박물관 10월5일까지
부도암 범종 등 소장문화재 전시
아도화상 503년 '죽원사'로 개산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이 대원사 개산 1520주년 기념 특별전을 열고 있다. 10월 5일까지 열리는 '대원사 성보문화재 특별전' 에서는 대원사 부도암 범종 등 대원사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와 흩어져 있지만 대원사와 인연이 있는 문화재를 선보인다.

△대원사 부도암 범종(보물 제1561호)은 순치 14년(1657년) 당시 최고 범종 장인 김용암이 조성했으며, 전체적인 비례가 아름답고 조각이 섬세하여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조선 중기 대표 명품 범종이다.

△대원사 사자 탱화(보물 제1800호)는 지장보살과 지옥에서 망자를 심판하는 시왕 및 지옥사자를 그린 불화로, 영조42년(1766년) 색민을 수석 금어로 하여 화승 18명이 참여하여 조성한 조선 중기의 뛰어난 불화이다. 1946년 대원사 지장전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광주 덕림사 명부전에 봉안했다가 2003년 4월 10일 다시 현재의 대원사로 옮겨와 티벳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보성 대원사판 〈선문염송〉은 인조14년(1636년) 송광사 제2대 진각국사 혜심이 서문과 함께 선문의 공안 1125칙에 게송을 붙여 판에 새긴 것으로 총 30권 10책으로 되어있다.

△운수단 가사는 인조17년(1639년) 서산대사(1520~1604)가 당시 여러 사찰에서 시행되던 예불문과 영가천도의식 등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개편 정리한 책으로 보성 대원사에서 간행된 목판본 불서이다. 이 밖에도 청화, 법정 스님의 서화, 통일신라시대 불상 및 경첩 등이 전시된다.

전남 보성 천봉산 대원사는 백제 무령왕 3년(서기503년) 신라에 불교를 전한 아도화상에 의해 창건됐다. 창건 당시의 사명은 죽원사였다. 7세기 이후(통일신라시대) 구산선문 중 하나인 열반종의 초조 보덕화상의 제자 일승, 심정, 대원 등이 거주하게 되면서 이후 열반종의 8대 가람 중 하나로 거듭난다. 고려 원종 1년(1260년) 조계산 송광사의 16국사(國師) 중 제5대인 자진 원오(慈眞圓悟, 1215~1286)가 중창했으며, 이시기에 사명이 대원사로 바뀌었다. (061)852-3038.

박재완 기자

만복승복(가사)

{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KBS '6시 내고향' TV방영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땅끝 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사주명리학 · 점술학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